

系組：韓國語文學系三年級

日期節次：7月28日第4節 15:20-16:40

科目：大二韓文翻譯 (129-72)

試將下文翻譯為中文

(注意：答案紙上標註題號。各題間留空。勿用鉛筆作答。字體大小適中，勿潦草。)

一.(60%)

1.20%

배가 몹시 고풀 여우가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살피며 돌아 다녔습니다. 마침 잘 익은 포도가 냉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"옳지, 됐다. 참 잘 익었구나."

2. 10%

여우는 그것을 따 먹으려고 열심히 발돋움을 했습니다. 그러나 여간해서 주등이가 닿지 않았습니다." 그럼, 이렇게 해보자."

3. 15%

여우는 몸을 움츠렸다가 경총 뛰어올라 보았습니다. 그래도 헛일이었습니다. 약이 바짝 올라 몇 번이고 뛰어올랐지만, 담을락말락하다가는 안 닿고 몸만 나가 떨어졌습니다.

4. 15%

여우는 지치고 실망한 끝에 제법 점잖은 목소리로, " 저까짓 시어빠진 포도는 아무 짹에도 소용 없어. 익기나 했으면 모를까?"하고, 터덜터덜 딴 데로 가 버렸습니다.

二.(40%)

5. 20%

불행하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 남자 없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.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항상 말버릇처럼 "자고로 과부라는 것은 이빨을 악물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다" 하고 타이르곤 했다.

6. 20%

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후 바람이 났다. 곧 눈치를 챈 며느리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들어온 말이 있어서 비난하고 나서자 시어머니는 겸연쩍었던지 며느리에게 입을 벌려 보이면서 말했다 " 에이그, 이것 보려무나. 나에게는 이제 악 물 이빨이 없지 뭐냐"